

어명소 제2차관, “GTX-A 조기개통에 만전” 강조

- 17일 GTX-A 대심도터널 현장 찾아 공정관리·안전관리 철저 당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7일(수) GTX-A노선 연신내역과 서울역 사이 지하 40m의 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,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.
 - 해당 현장은 서울 중심부를 통과하는 고난도 공사현장으로, 소음·진동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철도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TBM 공법*을 적용 중이다.
- * TBM(Tunnel Boring Machine):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방식이 아닌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하여 굴착하는 기계
- 어 차관은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 받은 뒤, “GTX-A노선은 수도권 북서부와 남부에서 서울역, 삼성역 등 서울 중심까지 연결하는 신규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로,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”이라면서,
 - “시공사와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GTX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”고 당부하고, “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- 또한, 어 차관은 “GTX-A 현장은 전 구간에서 지하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, 시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“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인 GTX-A의 조기 개통뿐만 아니라 GTX-B와 C의 조기 착공, 기존선 연장 및 신규 노선 등 확충 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2. 8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